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윤석열 지지한 젠틀재인 등은 대표성 없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윤석열 지지한 젠틀재인, 깨시연, 문꿀오소리 등은 문재인 대통령 팬 카페·지지자들 전체 대표성 갖지 않아... 극히 일부에 불과”
- 5일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젠틀재인, 깨시연, 문꿀오소리’ 등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지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5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지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젠틀재인, 깨시연, 문꿀오소리 등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및 팬카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젠틀재인과 문꿀오소리를 강력하게 규탄” 한다면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선언한다” 고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정치보복 망언에 분노하며 검찰공화국을 원치 않는다”며 “윤석열의 망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망국적 분열정치” 라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망언을 규탄했다. 특히, “문재인 팬카페 모두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를 낸” 언론들에 대해 정정 기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공포정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더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1] 성명서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윤석열의 정치보복 망언에 분노하며 검찰공화국을 원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젠틀재인과 문꿀오소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재인 팬 카페 모두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를 낸 데일리안과 채널A에 정정 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윤석열의 망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망국적 분열 정치이며 검찰 권력의 칼로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히 검찰 공화국의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항의한다. 국민 통합을 바라는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의 정치보복 협박과 공포정치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오보로 인한 정정 기사를 요구하며,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선언한다.

2022년 3월 5일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첨부2] 현장 사진





